

Daily Auto Check

2021. 8. 10(Tue)



meritz 메리츠증권

자동차/타이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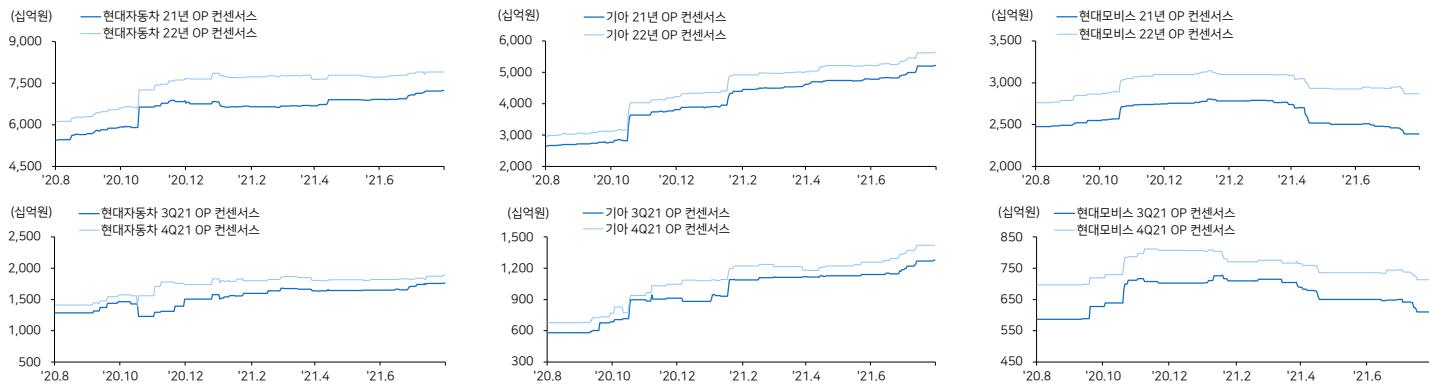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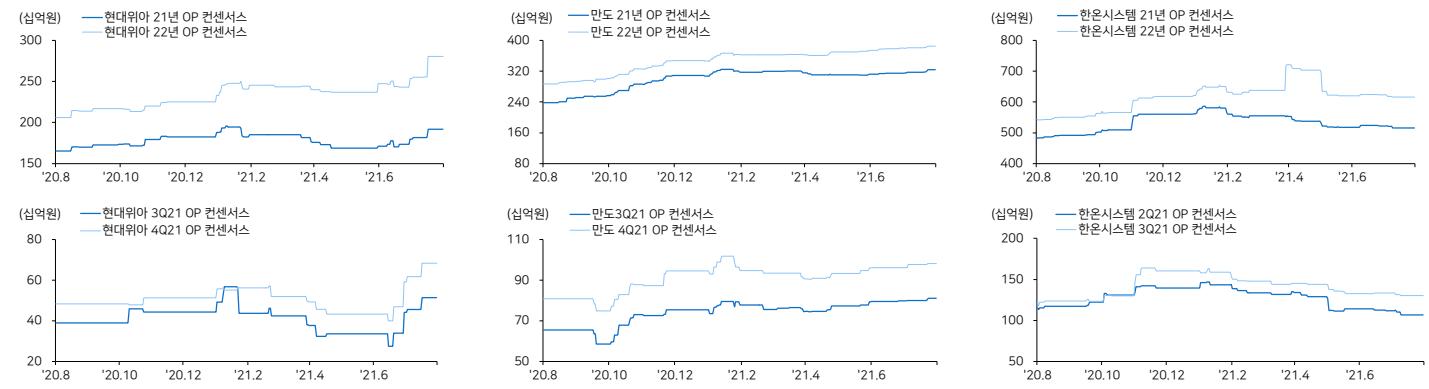
joonsung.kim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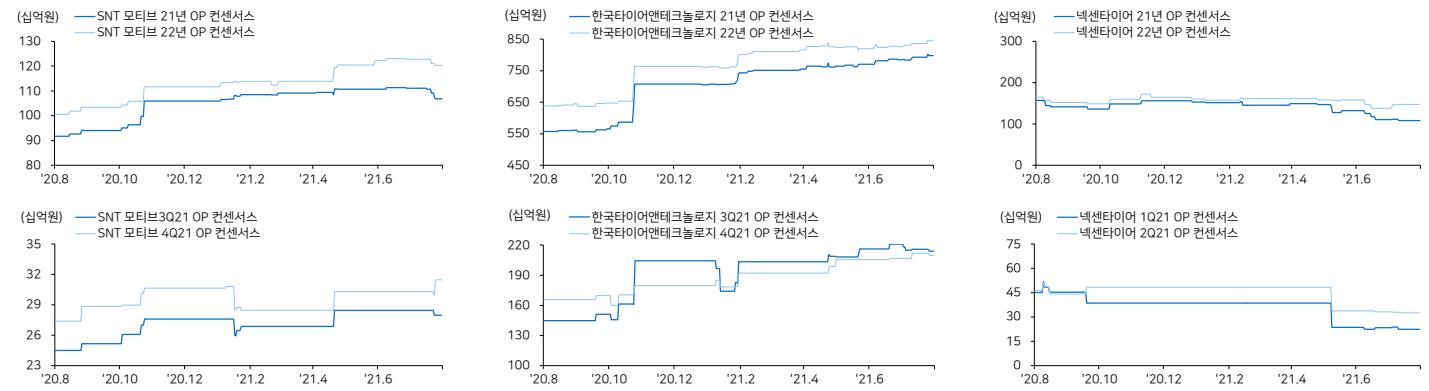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-기아 美서 폭증질주, 포드, 스웨덴타이스 제치고 점유율 3위 올라 (Auto Daily)

현대차와 기아, 제네시스 3개 브랜드의 지난 7월 미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.1% 증가한 14만3,779대를 기록하며 포드와 스웨덴타이스를 제치고 최초로 미국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, 1위는 토요타, 2위는 GM이 차지함.

<https://bit.ly/3jHCTL>

현대차, 美 파자리토 파우더 투자...연료전지 촉매 기술 확보 차원 (전자신문)

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력 제고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 '파자리토'에 투자함. 수소연료전지가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촉매를 개발하는 업체로, 백금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고성능 촉매를 개발 중.

<https://bit.ly/2VAhW1>

바이든이 던진 애플카 가이드라인…K베터리 두근두근 (머니투데이)

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사실상 '가이드라인'을 제시하면서 애플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. '마그나', '폭스콘' 등 북수 선상업체와의 협력설과, 미국에 공장을 가동 및 증설 중인 배터리사와 협력 가능성성이 제기됨.

<https://bit.ly/2Vzyi4a>

마이크로소프트, '현대차 투자' 어라이벌에 러브콜 (THE GURU)

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를 받은 영국 전기차 스타트업 '어라이벌'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차량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.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'애저(Azure)'를 기반으로 할 계획.

<https://bit.ly/2U3XE9v>

현대차, 제네시스 G90에 '콕핏 시스템' 첫 적용 (전자신문)

현대차그룹은 G90을 시작으로 고급차 차종으로 콕핏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전망. 블랙박스 OS 'QNX' 대신 엔비디아의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 '엔비디아 드라이브'가 계기판과 AVN 제어를 모두 관리함.

<https://bit.ly/3AoT5pB>

기아는 '뱅크샐러드' 롯데렌탈은 '포티투닷'… IT 테크기업 잡아라 (아시아투데이)

기아는 뱅크샐러드에 100억원을 투자하며 모빌리티와 금융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함. 또한 '롯데렌탈'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'포티투닷'에 투자하여 자율주행 관련 신사업을 현실화 할 인프라를 채워가는 중.

<https://bit.ly/3xA2dpB>

"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시장, 2030년까지 3배 성장" (The Elec)

원성차, ICT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로, 자율주행 성능을 좌우할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세 배 성장 전망이 등장. 지난해부터 경쟁 상황에서 놀랄만한 자율주행 2단계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.

<https://bit.ly/3Cx7GBc>

Tesla claims 92% battery cell material recovery in new recycling process (electrek)

Tesla는 2020 Impact Report의 발표와 함께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항을 발표. 재활용을 통해 배터리셀 재료 92%를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함. 또한 작년 배터리팩으로부터 1,300톤, 구리 400톤, 코발트 80톤을 재활용했다고 밝힘.

<https://bit.ly/3s2ihzr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